

# 가을



김 동 완  
(문화방송 보도위원)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중위도권의 온대성 기후대에 속하지만 아시아대륙의 동쪽해안에 자리하고 있어서 같은 위도권의 서유럽 국가들의 기후와는 다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계절이 뚜렷할 뿐만 아니라 장마철이란 또하나의 계절이 있어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가 크다. 한겨울에는 영하10℃에서 영하30℃까지 기온이 내려가 전국이 눈과 얼음으로 뒤덮힐 때가 있는가 하면 한여름에는 영상30℃에서 영상40℃까지 올라가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 되기도 한다.

가을 역시 낮기온이 30℃ 가까

이 오르내리고 비도 자주 오는가 하면 때로는 집중호우와 태풍이 내습하기도 하는 여름에 가까운 가을과 아침기온이 10℃아래로 떨어지고 바람도 세차게 불어 체감온도가 0℃ 가까이 떨어져 하루 사이에 겨울이 온 듯 한 겨울에 가까운 가을로 크게 구분할 수 있어 기후학적으로 볼 때 가을은 여름에서 겨울로 계절이 바뀌는 과정 즉 환절기에 불과하기도 하다.

따라서 가을철에는 자연이나 우리 일상생활도 우선 여름을 정리하고 겨울의 준비를 서둘러야 하는 시기가 된다.

한여름의 무더위가 점차 식어

가을철이 되면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청량함을 느끼면서 가을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

풀벌레의 울음소리에서, 높은 산의 단풍이 물들어 오는 것을 보면서, 산과 들의 오곡백과가 알알이 영글어 가지름 늘어뜨리는 정경속에서 가을은 익어간다. 이때부터 강수량은 급격히 적어져 건조기에 들어가기 시작하며 하늘은 점점 높아지고 단풍은 점차 붉게 물들어 하나 둘 낙엽이 되어 뒹군다. 가을이 깊어갈때면 가정에서는 겨울철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그런가 하면 가을철에는 계절행사도 많다. 스포츠의 계절이며, 관광레저의 계절이며, 각종 문화행사의 계절이며, 수확의 계절이며, 독서의 계절이며, 한해를 마무리하기 위한 계절이기도 하다. 바쁜 일손에도 불구하고 가을소풍을 가야하고 유명사찰을 탐방해 보아야하고, 추석날 조상들의 묘소참배도 해야하고, 베타기를 비롯한 가을 추수도 해야하는가 하면 가을철 산과 들의 정경을 마음껏 탐닉해 보고픈 계절이기도 하다.

가을은 기상조건으로 볼 때 생

〈표1〉 지방별 냉·난방기간

지명	난 방(<18℃)			냉 방(>24℃)		
	시 작	마지막	총일수	시 작	마지막	총일수
서울	9월 27일	5월 27일	243일	7월 9일	8월 29일	52일
강릉	9월 16일	5월 27일	254일	7월 19일	8월 23일	36일
인천	9월 29일	6월 5일	251일	7월 15일	8월 28일	45일
대구	9월 28일	5월 20일	235일	7월 6일	8월 28일	54일
전주	9월 26일	5월 26일	243일	7월 3일	8월 29일	58일
광주	9월 29일	5월 25일	239일	7월 5일	9월 1일	59일
부산	10월 7일	5월 27일	233일	7월 16일	8월 26일	42일
제주	10월 8일	5월 31일	236일	7월 5일	9월 5일	63일

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기상변동이 심한 계절이기도 하다. 여름철 장마와 폭서로 심신이 피로해 신체의 저항력이 약해진 상태임으로 각종 수인성 전염병이나 식중독에 대비해 충분한 영양섭취와 체력단련에 신경을 써야 한다.

또한 가을철은 공기가 건조해지면서 기온도 떨어짐으로 난방 준비를 해야 한다.

실내기온이 18℃ 아래로 떨어지면 추위를 느끼게 됨으로 일의 능률을 높이고 유쾌한 생활을 위해서 난방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난방을 시작하는 시기는 평균기온이 18℃ 아래로 떨어지는 때이며 냉방을 시작하는 시기는 24℃ 이상 되는 날로 하고 있다.

〈표1〉은 주요지방의 냉·난방 기간이다.

〈표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난방기간이 냉방기간보다 훨씬 길다. 따라서 난방시설에 보다 신경을 써야하겠고 난방기간에는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세차게 부는 계절이어서 불이 나기 쉽다. 그래서 가을철에 겨울채비를 할 때 일반적으로 추위

에 대한 대비만을 하기 쉬우나 이것보다 먼저 생각할 일은 화재 예방에 대한 준비를 빈틈 없이 해야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화재원인중 가장 많은 전기, 유류, 가스 등 난방과 관련된 열기구 등의 취급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다. 특히 장마철을 지나면서 누전되는 일은 없는 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겠다. 그리고 여러가지 가전제품이나 누전차단기, 트랜스, 기타 전기배선이나 소켓, 콘센트 등에 대한 일체점검을 해야한다.

기상 특이일(特異日)

일년 365일 중에서 어떤 날에 우연이라고만 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확률로 맑은 날, 비오는 날 또는 특이한 기상상태가 나타나는 날이 있는데, 이것을 기상특이일(Singularity)이라고한다.

각 지방별로 매월 비 또는 눈이 내리기 쉬운 날과 맑은 날이 되기 쉬운 날을 소개하면 〈표2〉, 〈표3〉, 〈표4〉와 같다. ㉞

〈표2〉 비나 눈이 내리기 쉬운 날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서울	14	22	6.19	24	29	30	10	4	4	2.28	26	2
대전	4.29	4	16.29	16	18.26	30	16	6	1	3.4	28	6.14
광주	10	8.9	19.20	8	18	30	3.11	30	5	12	27	2
대구	18	14	29	8	18	30	7.11	6	3	15	6	14

〈표3〉 맑은 날이 되기 쉬운 날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서울	17	1	7	4	14.15	7	29	6.26	22.30	19	2	29
대전	31	10	6.17	14	2.21	2	23	17	12	19	2.7	23
광주	22.27	23.24	27	2	14	6	24	26	25	19	3	11
대구	31	1	17	16	28	11	24	10	27	21	7	11

〈표4〉 집중호우가 내리기 쉬운 날

지역	월	6	7	8	9
서울		29	7, 10	2	3
대전		25, 29	4, 16	5, 19	2, 4
광주		26	4, 11	30	2, 4
대구		26, 28	4	4, 22	8